

I

경영환경

- 2021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소매판매, 투자, 산업생산, 수출 등이 확대되며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됨
 -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은 큰 폭 증가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4분기 연속 상승 이후 100을 상회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함
- 2021년 2/4분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6.0%)을 기록하였고, 경기 회복흐름을 고려할 때 2021년 연간 4.0% 수준의 경제성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수출입 증가율 또한 2020년 2/4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2/4분기에 큰 폭으로 상승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4.1%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에 따른 성장세 회복이 이어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함
 -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및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04%, 2.49%로 2018년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국내외 주식, 보험 및 연금 거래금액이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6.1%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전 4년(2017~2020년) 거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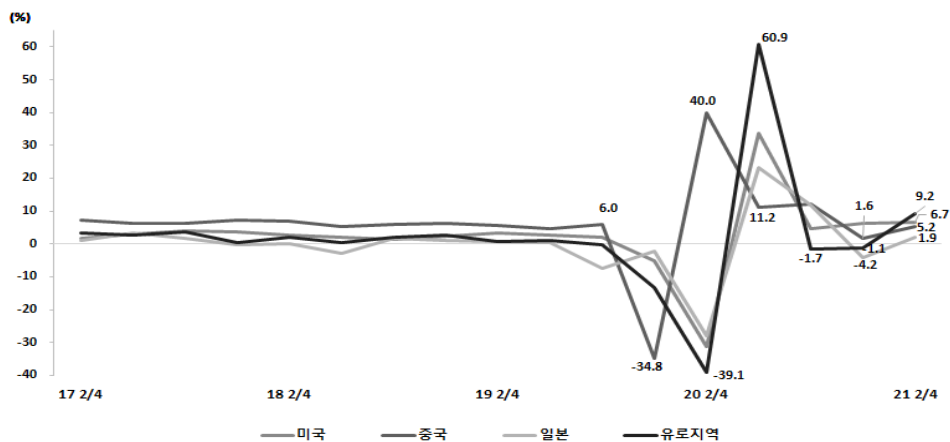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1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분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됨

- 미국 GDP 성장률(6.7%)은 소비지출, 비거주용 설비 및 지식생산물 투자,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분기 보다 0.4%p 상승함¹⁾
- 중국 경제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성장세(5.2%)를 이어감²⁾
- 일본 경제는 서비스업 소매판매 약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로 전분기 대비 6.1%p 상승한 1.9% 성장함³⁾
- 유로지역은 2021년 2/4분기에 가계 소비지출, 정부지출, 수출 등의 확대로 9.2% 성장하며 회복세가 크게 확대됨⁴⁾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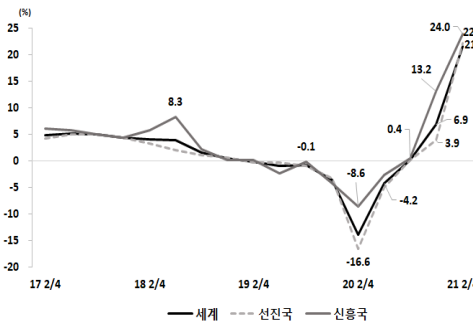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9); 중국 국가통계국(2021. 9); 일본 내각부(2021. 9); Eurostat(2021. 10)

-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Release(2021. 9),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GDP by Industry, and Corporate Profits (Revised)", 2nd Quarter 2021
- 2) CNBC(2021. 7), "China's GDP grew 7.9% in the second quarter; retail sales beat expectations"
- 3) Nikkei Asia(2021. 9), "Japan GDP growth in April - June upgraded to annualized 1.9%"
- 4) Eurostat(2021. 9),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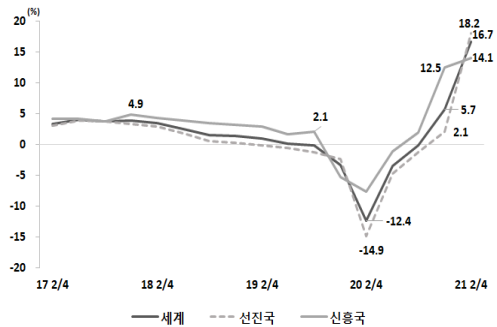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21.5%, 16.7%로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는 각각 22.2%, 2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 확대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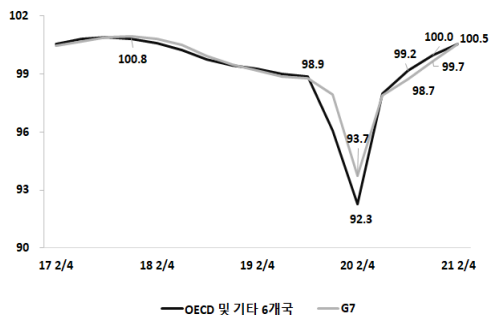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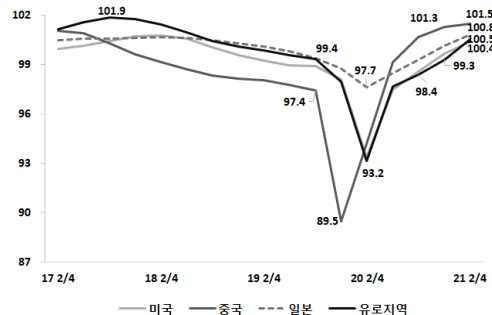
○ 2021년 2/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⁵⁾는 100.5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함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5로 전분기보다 0.8p 상승하였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각각 0.7p, 0.7p, 0.2p, 1.2p 상승한 100.4, 100.8, 101.5, 100.5를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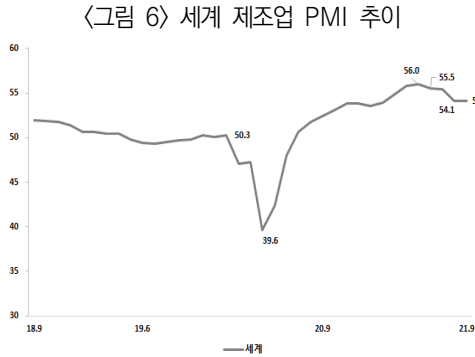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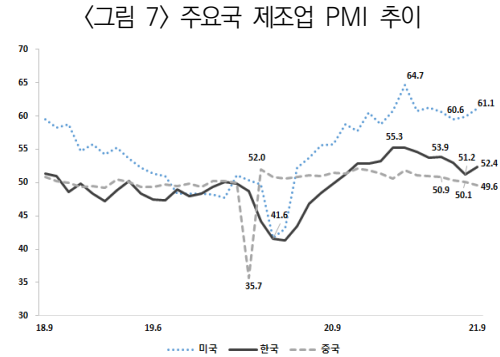
5) 경기흐름을 가능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2021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⁶⁾는 54.1로 지난 5월 최고치(56.0)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고 있음

- 2021년 9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61.1로 지난 3월 정점에 도달한 후 60선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각각 52.4, 49.6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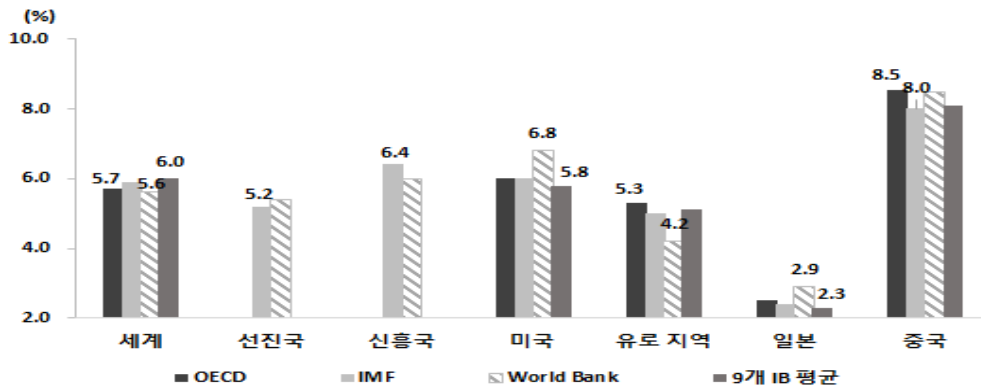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소비 둔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낮추어 전망함

- OECD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1년 5월 5.8%에서 2021년 9월 5.7%로 0.1%p 하향 조정함⁷⁾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는 Barclays, BoA-M,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임
 자료: IMF(2021. 10); OECD(2021. 9); World Bank(2021. 6); 9개 IB 평균(2021. 9)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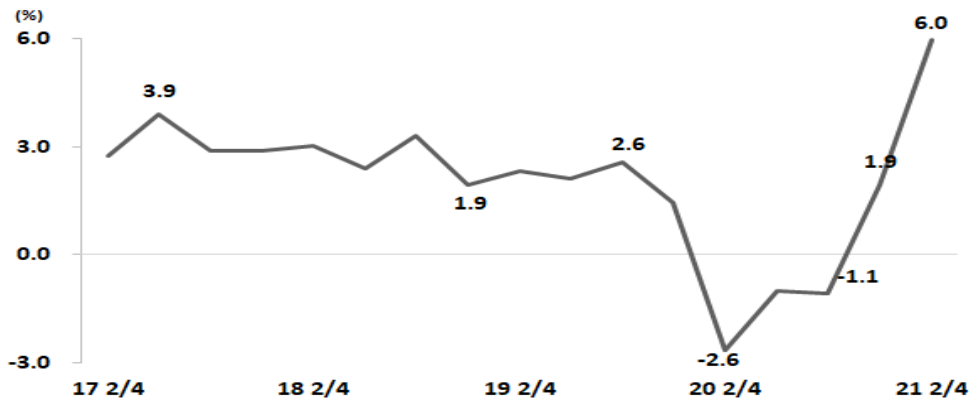
7) OECD(2021. 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나. 국내경제

○ 2021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며 상승세가 지속됨
 -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됨
 - 소비자심리지수는 105.9로 전분기 대비 8.1p 상승하였으며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이 계속됨⁸⁾
 - 설비투자는 4월과 6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였고,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 4분기 연속 감소함
 - 기계수주는 4월 민간 수주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함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22.4%, 13.7%로, 2020년 2/4분기 대폭 하락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2/4분기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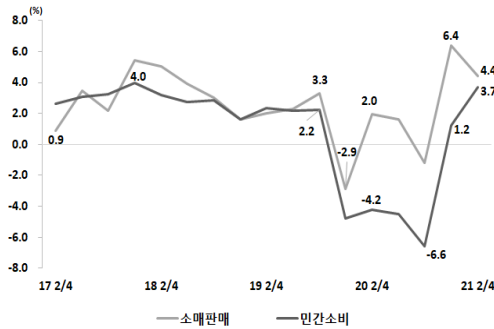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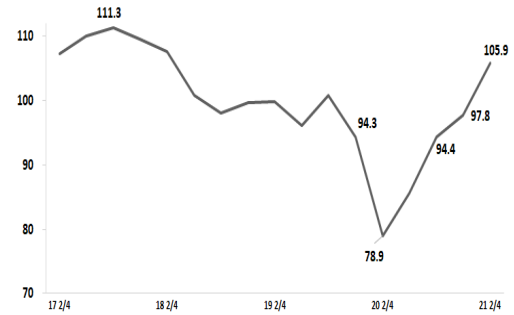
8) 통계청 보도자료(2021. 5),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6),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7),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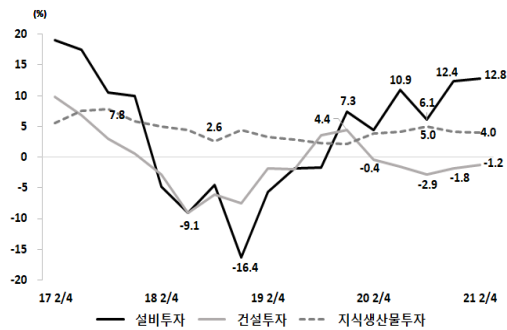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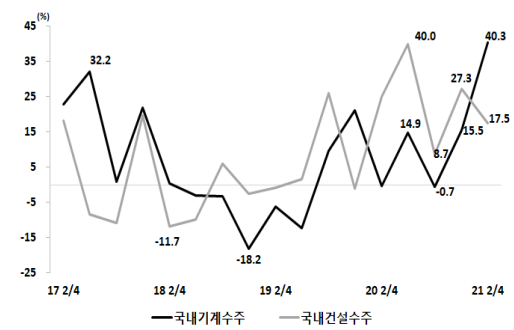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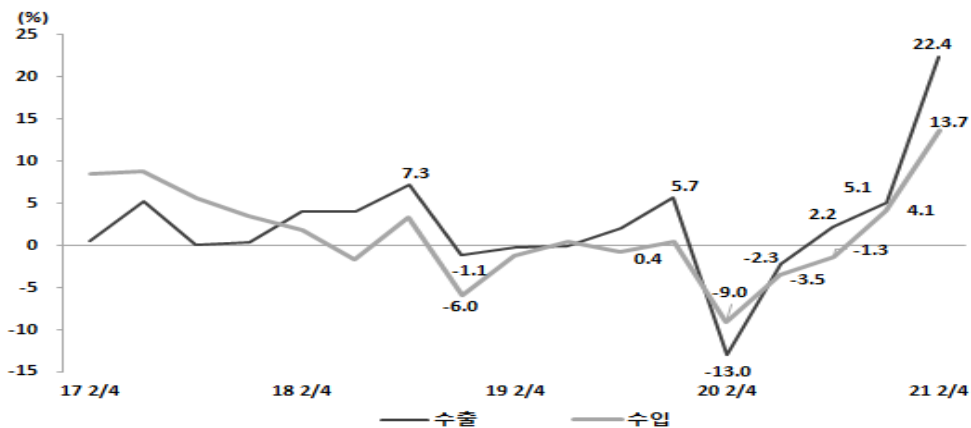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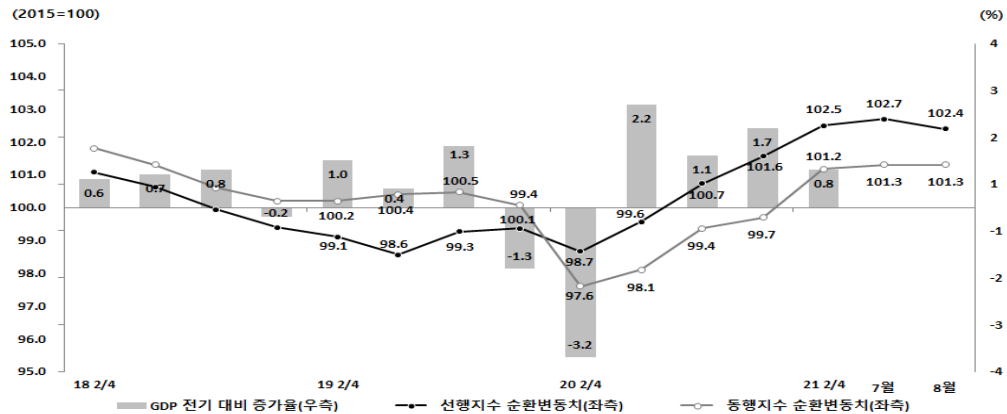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2.5, 101.2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21년 8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2021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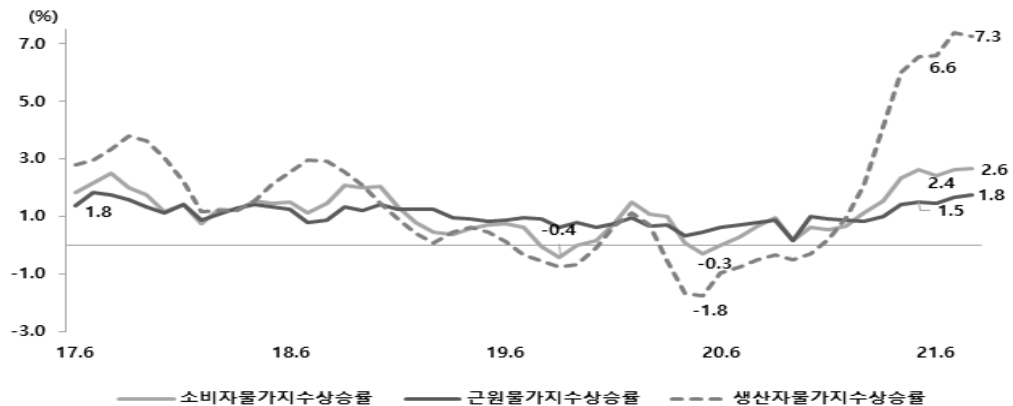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1년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6월 2.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강세 등이 영향을 미침⁹⁾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9) 기획재정부(2021. 8; 2021. 9),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수출 성장과 투자 확대,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국내경제가 백신접종 확대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6%(Nomura)에서 최고 4.8%(UBS), 평균 4.1%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 ¹⁾		2022(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2.8	3.5	3.4	3.9
설비투자	-7.5	7.1	8.8	9.1	2.1	3.2
건설투자	-2.5	-0.4	0.9	-0.5	2.9	2.4
지식생산물투자	3.0	4.0	4.4	4.0	3.8	3.3
상품수출	0.5	-0.5	8.9	8.5	2.7	2.6
상품수입	-0.8	-0.1	9.5	10.3	3.0	3.3
실업률	3.8	4.0	3.9	3.7	3.8	3.7
소비자물가	0.4	0.5	2.1	2.3	1.5	1.7
경상수지	600	753	820	912	700	651
상품수지	769	819	710	786	730	6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67	110	126	-30	-39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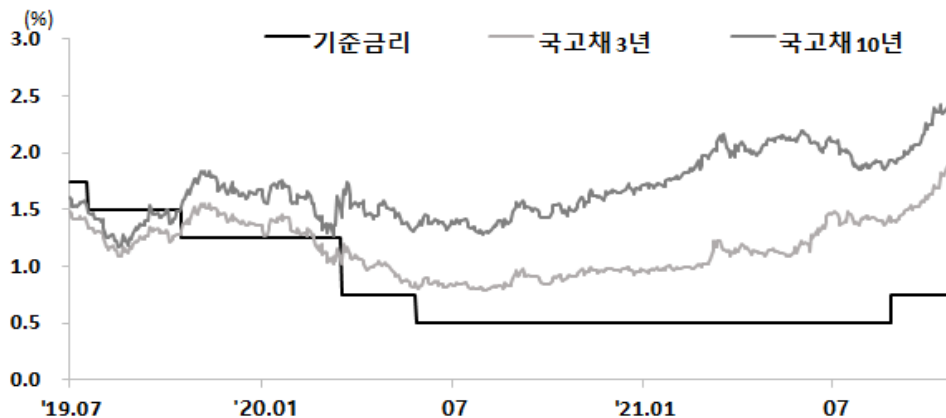
10)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1년 9월 말 기준임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에 따른 성장세 회복이 이어짐에 따라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였고,¹¹⁾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¹²⁾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계획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및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빠르게 상승함
 - 10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04%, 2.49%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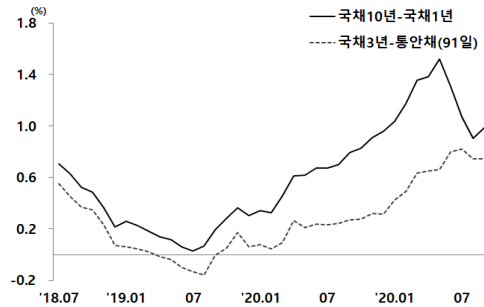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확대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및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8월 45.0bp에서 10월 68.1bp로 확대됨

11) 한국은행(2021. 8. 26), 『통화정책방향』

12) 한국은행(2021. 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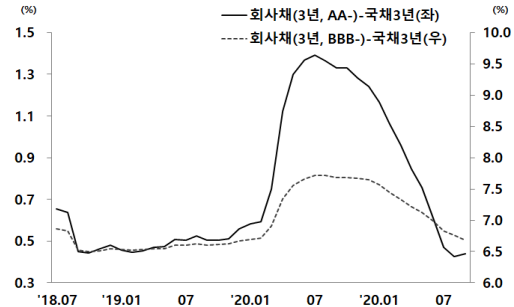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회사채 AA-, 국고채 3년물)는 국고채 금리 상승 및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 확대, 기관들의 평가손실 확대 등으로 신용거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8월 42.7bp에서 10월 46.0bp로 확대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함
 -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전망 등으로 1.70%까지 상승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4/4분기 한국 3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하향 조정함
 - 2021년 4/4분기 한국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56%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13%p 상향 조정하였고,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6%, 1.68%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01%p, 0.12%p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1. 4Q	'22. 1Q	2Q	'21. 4Q	'22. 1Q	2Q	'21. 4Q	'22. 1Q	2Q
1.68	1.80	1.90	2.16	2.22	2.25	1.56	1.63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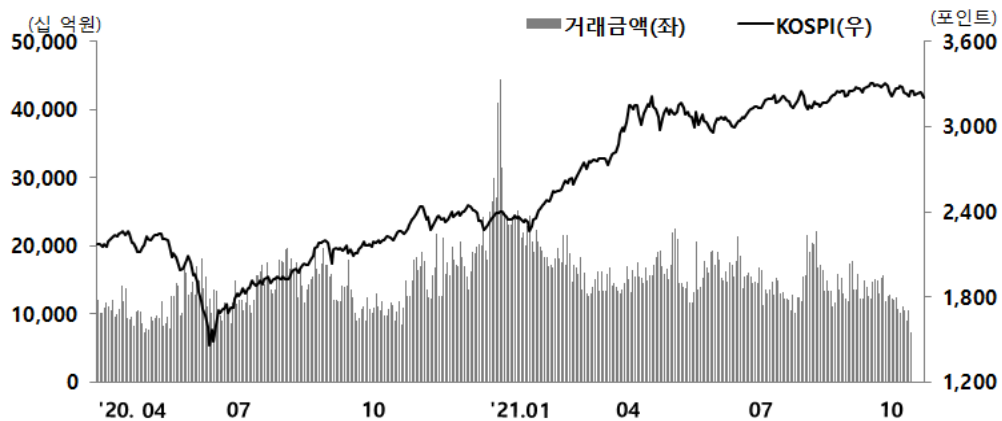
주: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¹³⁾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요인과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 등의 상승요인이 혼재하며 3,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함
 - 9월 코스피 지수는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및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주요국 주가와 함께 하락세¹⁴⁾를 보이며, 3,069포인트에서 마감함
 - 10월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서 박스권이 지속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보임
 - 9월 원/달러 환율은 선박수주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과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종료 및 긴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180원대로 상승함
 - 이후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¹⁵⁾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며, 10월 원/달러 환율은 1,199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로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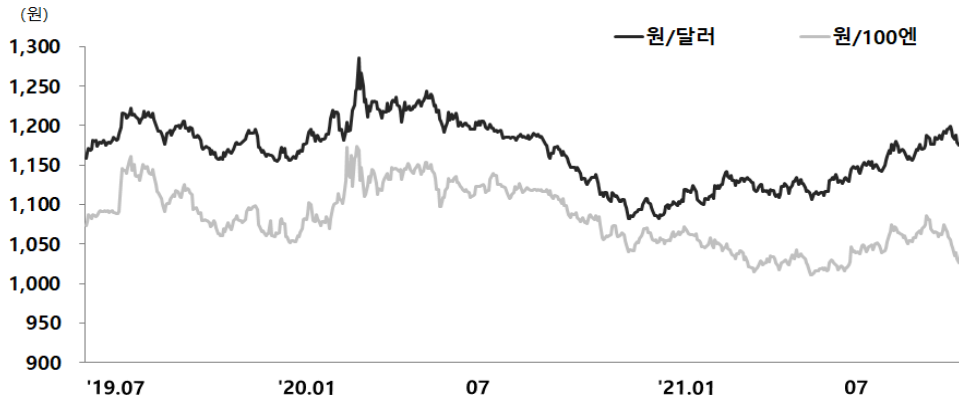
13) 9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14)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 10. 13), “2021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15) KDB(2021. 10. 5), 「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 『Weekly KDB Report』

- 9월 원/엔 환율은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어 소폭 상승세를 보임
- 한편, 10월에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00엔당 1,120원대를 기록함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4/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 헝다그룹 관련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1. 3Q	'21. 4Q	'21. 3Q	'21. 4Q	'21. 3Q	'21. 4Q
Wells Fargo	1,184	1,180	112	115	1.16	1.15
Mizuho Bank		1,190		113		1.15
PNC Financial		1,170		111		1.17
ING Financial Markets		1,180		112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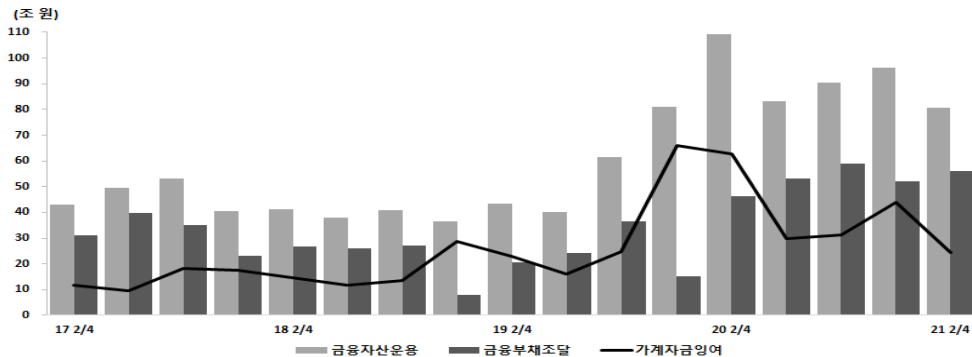
주: 2021년 4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¹⁶⁾의 자금잉여¹⁷⁾는 24.5조 원으로 전기 대비 19.5조 원 감소하였음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0.5조 원이었고, 금융부채조달은 56.0조 원으로 2020년 4/4분기(59.1조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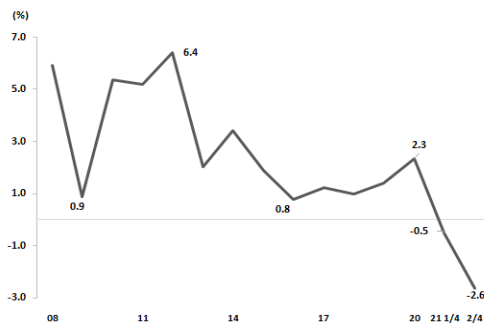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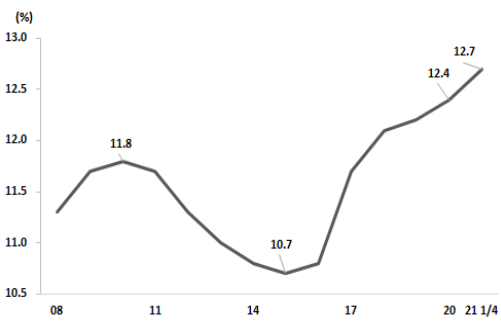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였고, 2021년 1/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4〉 DSR



-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BIS

자료: 통계청

16)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7)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1년 2/4분기 가계부문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와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거래금액이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채권 거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 2/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6.1%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직전 4년도 거래 비율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7	105.4	83.3	(46.8)	-11.9	0.0	1.3	-3.6	178.1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181.6
2020	189.9	73.0	(20.1)	10.2	62.2	20.6	-6.6	363.8
2021 1/4	41.9	13.8	(14.4)	-11.8	36.5	12.5	2.6	96.1
2021 2/4	36.9	13.0	(16.1)	-5.1	29.2	2.8	1.0	80.5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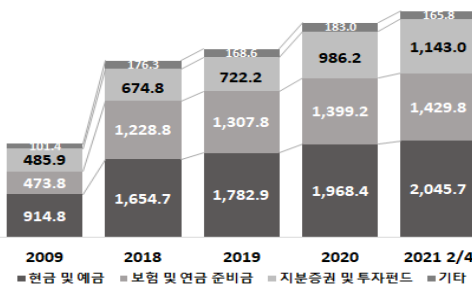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2/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2020년에 비해 0.9%p 하락함

- 2021년 2/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42.8%로 2020년 대비 0.6%p 하락하였고, 지분 증권 및 투자펀드는 23.9%로 전년도보다 2.2%p 증가함

〈그림 25〉 가계 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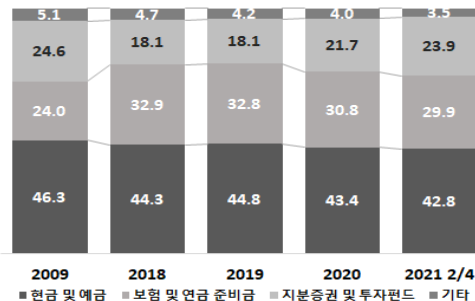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중)

(%)



자료: 한국은행

4. 규제·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2021. 9. 30 금융위원회)

- 최근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고, 상급병실 및 한방 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 함. 또한 부녀자 및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함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 9~10. 19)(2021. 9. 9 금융위원회)

-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021년 5월)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2021년 7월)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함
-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음.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신(新) 보험회계 기준(K-IFRS 제1171호(보험계약)) 시행 준비를 위한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2021. 8. 1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 기준(K-IFRS 제1171호(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신(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사전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함

○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응책 강구(2021. 7. 29 금융위원회)

-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등록 취소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함. 또한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함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강화(2021. 7. 28 금융감독원)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장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 하게 함

○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2021. 7. 27 국토교통부)

-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하기로 함. 이에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할증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됨

○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2021. 7. 26 금융위원회)

- 전화·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 7. 23)하여 계약자가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함